

천마재배는 재배용 종균선택이 가장 중요하다

최근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마 인공재배는 재배성공율이 2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.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시중에 유통하는 다양한 재배균을 수집, 검정하여 이들의 80% 정도가 재배에 부적합한 균임을 구명하고, 재배실패의 주원인이 종균에서 비롯됨을 밝혔다.

- 천마는 뿔나무버섯균 (*Armillaria mellea*)과 공생하는 특이한 난과식물로 땅속 덩이줄기(根莖)과 한약제로 이용되며, 옛날부터 고혈압, 뇌졸중, 진통, 간질, 어지러움증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- 천마 인공재배는 참나무등의 활엽수 원목에 종균을 접종하고, 균이 활착된 버섯나무 옆에 종마(어린천마)를 식재하며, 이 천마가 균사 속을 통하여 영양을 얻어 증식되도록 하는 것으로, 1980년대 들어 처음 재배되기 시작하였고, 최근 농산물 개방과 농촌노동력 감소에 편승하여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산되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.
- 그러나 급격히 확대보급된 천마재배는 기대에 부푼 농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. 현지조사 결과 재배 농가의 85%가 실패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재배방법의 미숙과 더불어 불량종균의 무분별한 사용이 주된 실패원인이 밝혀졌다.
- 임업연구원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천마재배용 종균을 전부 수집하여 시험중에 있으며, 이중 15종을 검정한 결과, 50%는 천마재배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종균이었으며, 실연재배시험 결과 천마증식량이 많은 우량균주는 단 2종으로 13%에 지나지 않음을 밝혔다.
- 따라서 금년도 재배착수기인 4월 중에 새로이 시작할 재배농가는 종균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하도록 경고하고, 농민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·개발된 재배방법을 포함하여 자문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.